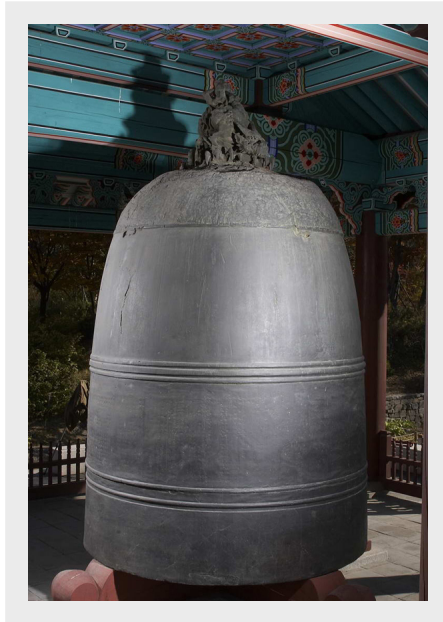


보신각 동종[普信閣 銅鍾]

서울 주민에게 시간을 알려주다

1468년(세조 14) ~ 미상



1 개요

보신각 동종은 조선시대 종루에 매달아 도성 사람들에게 성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려주는 데 사용된 대종(大鐘)이다. 종의 명문(銘文)에 따라 1468년(세조 14)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신각 동종의 형태는 음통(音筒)이 없고 두 마리의 용이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한 몸통에는 3개의 굽은 띠가, 입술 윗부분으로는 두 줄의 띠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져 있다. 이러한 보신각 동종은 1985년까지 제야의 종으로 울렸으나, 몸통에 금이 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보관 중이다. 보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조선시대의 종루, 현재는 보신각

1398년(태조 7) 태조는 서울 도성 곳곳에 시간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주조한 종을 종루에 걸었으며, 물시계인 경루(更漏)도 설치하였다. [관련사료](#) 그리하여 해가 지면 한양 도성의 문을 닫고 새벽이 되면 문을 열어 주는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인정의 시간은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 초경 3점 말이다. 이 시각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라에서는 종을 28번 쳤다. 28의 숫자는 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한 별자리 28수(宿)에서 유래한다. 즉 인정은 우주의 일월성신 28수에게 고하여 밤의 안녕을 기원한 것이다. 이와 반대인 파루의 시간은 새벽 4시 경인 5경 3점으로 북을 33번 쳐서 시간을 알렸다. 파루는 ‘물시계를 그친다.’는 의미로 파루시각인 5경 3점이 되면 물시계인 경루가 운행을 멈춘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또한 33번의 북소리는 불교의 33천(天)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석천(帝釋天)이 이끄는 하늘의 33천에게 고하여 하루의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루는 1413년(태종 13) 행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금사(巡禁司)의 남쪽, 광통교의 북쪽인 통운교(通雲橋)로 이전되었다. 관련사료 그 뒤 1426년(세종 8) 전옥서의 서쪽에 사는 정연(鄭連)의 집에서 불이 일어나, 전옥서가 연소되고 불길의 종루까지 이르러 한때 소실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따라서 세종은 종루 누문(樓門)에 불을 끄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였다.

세종 때에는 종래 좁았던 종루를 확장하여 구조를 고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때 종루는 층루(層樓)를 지었는데, 동서가 5칸이고 남북이 4칸이었다. 누 위에는 인정과 파루를 알리는 종과 북을 달아 도성 백성들에게 새벽과 저녁을 알렸다. 관련사료 이때 종루에 십자형의 가로를 만들고 종루 아래로 사람과 말들이 통행했다고 한다. 이후 1458년(세조 4)에는 새로 대종(大鐘)을 만들어 종루에 달았다. 관련사료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종루는 소실되고 종도 파괴되었다.

종루의 재건은 광해군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1619년(광해군 11) 광해군은 종루의 중건을 명하고 종을 걸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전란 이후였으므로 서울과 지방에 건축 재료가 모두 고갈되어 종루를 중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병조의 의견에 따라 종각만 다시 건설하여 종을 걸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이때 새로 지은 종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의 2층 형태가 아닌 1층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후 종각은 1686년(숙종 12)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고, 다시 중건해야만 했다.

종각이 보신각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95년(고종 32)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종각에 ‘보신각(普信閣)’이라는 현판을 달았고, 현판의 글씨는 서화가 김규진(金圭鎭)이 썼다. 관련사료 이후부터 종각은 보신각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대중 또한 보신각종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경성부가 도로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신각이 원래 위치보다 뒤로 물러나 자리 잡게 되었다. 관련사료

3 보신각 동종과 전설

조선시대 한양에는 큰 종이 여러 개 있었다. 먼저 운종가 종이다.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어 종로 종각에 두고 인정과 파루를 알려 주었다. 이 종은 1395년(태조 4)에 권근(權近)이 그 이름을 짓는 서문(序文)을 지었지만, 두어 차례 문제가 생겨서 1398년에야 주조에 성공하였다. 관련사료 이 종은 임진왜란 때 종각이 소실되면서 녹아 없어졌다고 한다. 관련사료

다음으로 돈화문 종이다. 1412년(태종 12)에 주조를 시작하여 1413년(태종 13)에 완성된 것이다. 변계량(卞季良)이 종명(鐘銘)을 지었으며, 돈화문(敦化門) 누각에 매달았다. 관련사료 그러나 1432년(세

종 14) 돈화문의 종을 만들 금속을 경상도 지역 폐사의 종으로 사용하게 했다. [관련사료](#) 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세종 대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돈화문 종이 다시 주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457년(세조 3)에 주조한 광화문 종도 있다. 이 종은 처음에는 사정전(思政殿)에 두려고 하다가 새로 조성한 종각에 두었다. 이때 종의 서문은 신숙주가 지었다. [관련사료](#) 이 종은 원래 궁궐 안에 있다가 광화문 밖 서편에 각(閣)을 짓고 옮겼으며, 영조대 종이 깨져 소리가 나지 않아 민간에서 이를 병어리종이라 하였다. 1866년(고종 3) 당백전(當百錢)을 제조할 때에 녹여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흥천사 종은 1461년(세조 7) 회암사의 사리분신(舍利分身)을 흥천사 사리각에 봉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조참판 한계희(韓繼禧)가 종명을 짓고 정난종(鄭蘭宗)이 쓴 것으로 도성 내에 있던 흥천사(興天寺)에 매단 것이다. [관련사료](#) 이 종은 정릉종(貞陵鐘)으로도 불렸으며, 현재는 덕수궁 광명각 안에 보관되어 있다. 흥천사 종과 함께 1468년(세조 14) 2월에 주조한 종이 있다. 『조야회통(朝野會通)』에는 세조 대에 대종을 만들어 운종가에 두고 인정과 파루를 올렸다고 한다. 『별건곤』에서는 이 종을 보신각 동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관련사료](#) 보신각 동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현재의 보신각종은 흥천사에 있던 두 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원각사로 옮겨졌다가 임진왜란 이후 종루에 걸려서 타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보신각 동종에는 애처로운 전설이 있다.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시민에게 시각을 알리기 위해 종각을 짓고 그 안에 큰 종을 만들어 걸었는데, 종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무쇠가 징발되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종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즉시 금이 생겨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종을 만드는 장인이 도사(道士)에게 물으니 쇠물을 녹일 때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함께 넣어 끓이라고 하여 장안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령(使令)들이 짝 퍼졌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곳에도 아이를 팔려고 하는 부모는 없었다. 이때 한 부인이 농담 삼아「우리 애기를 팔아볼까」하고 말했다가 사령들에게 아이를 빼앗겨 쇠물에 넣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쇠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어미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뜻으로 「어밀내! 어밀내! 어밀내!」하고 세 번 외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보신각종을 칠 때마다 어밀내 어밀내하고 소리가 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관련사료](#)

4 해방 이후 다시 울렸던 보신각 동종

조선시대 종루에서는 초경 3점(初更三點)에 인정 종을 치고 새벽 5경 3점에 파루를 쳐서 도성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보신각종을 인정종이라고 하고 보신각을 인정전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인정과 파루의 제도가 사라지고 시계가 있는 집들이 생기면서 종루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종도 울리지 않게 되었다.

보신각의 종이 다시 울리게 된 때는 1949년 8월 15일이 되어서이다. 서울시에서는 광복 이후 시민들에게 사이렌으로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이렌이 고장이 나자 일반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되었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매일 보신각종을 울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로 계획하였다. 종을 치는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하였으며, 옛 형식에 따라 타종되었다. [관련사료](#)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보신각은 1950년 6·25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3년 뒤인 1953년 12월에 다시 중건되었다. 이후 1973년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던 중에 보신각 서편 지하에서 동서 2칸, 남북 4칸의 기둥 간격을 입증하는 주초석과 장대석이 발견되었는데, 임진왜란으로 불타기 전의 보신각 종루의 유구로 추정되었다. 이 유구들은 경복궁 아미산(峨嵋山), 민속박물관 입구 등에 조경되어 있다가 서울역 사박물관으로 옮겨졌다.

1978년에 보신각은 다시 복원되었다. 이때 건물의 위치는 종로 사거리와 45도 각도의 서북 방향에 세워졌다. 복원된 보신각의 규모는 조선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정면 5칸, 측면 4칸, 연건평 144평의 중층 누각으로 건설되어 위층에 종을 걸고 아래층은 개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둥근 주춧돌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리하였다. 건물의 기단에는 4면으로 석조 난간을 둘렀으며, 가운데에는 5단의 장대석 계단을 한 벌씩 놓았다. 아울러 1층 정면 좌우 협간 북쪽으로 2층의 누로 올라가는 목조계단이 각각 설치되었다. 현재 보신각 동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종로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제작된 것이다.